

## 형 법

문 1.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형벌법규는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② 관습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- ③ 신법이 경한 경우에 법률로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④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.

문 2.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?

- ① 실패한 교사 - 교사자를 예비·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.
- ② 효과 없는 교사 -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·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.
- ③ 특수한 교사 -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/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.
- ④ 특수한 방조 -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/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.

문 3.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.
- ②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.
- ③ 고의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,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.
- ④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.

문 4.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.
- ②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.
- ③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부진정부작위범에도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다.

문 5.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.
- ②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.
- ③ 인질치사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.
- ④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.

문 6.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15세된 가출소녀를 유혹하여 단란주점에 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취직자리를 찾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 유인하였다가 단란주점 주인과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검거되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.
-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.
- ④ 인격적 자각이 있고 범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.

문 7. 판례에 의할 때 (업무상)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만 묵인 것은?

- ㄱ.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할인받은 다음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
- ㄴ.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
- ㄷ.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
- ㄹ.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8.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소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절취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이다.
- ③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경우에는 그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.
- ④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공무원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.

문 9.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? (판례에 의함)

- ㄱ.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, 약품 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
- ㄴ. 요거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우
- ㄷ. 범행 당일 세관 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,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한 실행행위를 못한 경우
- ㄹ.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내려지도록 규정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 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 신청을 한 경우

- ① 1개
- ② 2개
- ③ 3개
- ④ 4개

문 10. 다음 각 행위자의 죄책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문서작성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만든 경우 -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
- ②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-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
-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전화에 가입한 경우 - 공문서부정행사죄
- ④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- 사문서위조죄

문 11.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죄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甲은 타인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1,000만원을 이체한 후, 이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친구 乙에게 30,000원을 용돈으로 주었다면 甲은 ㉠, 乙은 ㉡이다.

- |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|
| ㉠          | ㉡     |
| ① 절도죄      | 장물취득죄 |
| ② 컴퓨터사용사기죄 | 장물취득죄 |
| ③ 컴퓨터사용사기죄 | 무죄    |
| ④ 사기죄      | 무죄    |

문 12.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은 어떻게 처리되는가? (판례에 의함)

甲과 乙은 공동으로 계엄령 위반행위를 하였던 바, 甲이 먼저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. 그 후에 乙이 체포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.

- ① 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,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.
- ② 乙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고,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.
- ③ 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, 甲의 형은 집행이 면제된다.
- ④ 乙에게는 계엄령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고, 甲의 형은 계속 집행된다.

문 13. 판례가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우선통행권을 가진 자동차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
- ②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
- ③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④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

문 14.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 변별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 평소에는 정신병이 있더라도 범행시에는 정상상태였던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문제 삼을 수 없다.
- ③ 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감정결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.
- ④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선고가 일단 확정된 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 사건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독립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.

문 15.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②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로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3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,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.
- ③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,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.
-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(형법 제309조 제1항)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.

문 16.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.
- ㄴ.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.
- ㄷ.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.
- ㄹ. 甲이 소매치기한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므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.

-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|
| ① ㄱ, ㄷ | ② ㄷ, ㄹ |
| ③ ㄱ, ㄹ | ④ ㄴ, ㄹ |

문 17. 통화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 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 손상을 가한 것만으로는 통화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.
- ③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, 형법 제207조 제3항(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·변조죄)의 객체가 된다.
- ④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.

문 18. 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는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려 하는 乙을 폭행하여 권총을 빼앗았다.
-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甲은 다수 입주인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.
- ③ 술집 주인 甲은 폐점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술을 달라며 내실까지 따라온 취객 乙을 내쫓기 위해 때밀어 상해를 입혔다.
- ④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甲은 폭력배들의 폭행에 쫓긴 乙이 화장실로 뛰어 들어오자 수치심으로 크게 당황하여 乙을 쫓아내려다 얼굴을 활켜 큰 상처를 냈다.

문 19.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? (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복권표면에 광고주의 업체 지면광고 및 복권번호가 기재된 광고복권을 제작하여 광고주들에게 판매하였다. 광고복권은 회차에 관계없이 주택복권의 매회 각 등수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당첨금을 지급하게 된다. 광고주들은 업체 홍보 및 판촉수단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. (복표발매죄)
- ② 甲, 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상해를 가한 후 조직원 1~2명을 경찰에 자수시켜 조직의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자수한 조직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은폐하려 했으나 자칫 범행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목격자 丁을 협박하여 도피하도록 하였다. (증인도피죄)
- ③ 甲은 乙로부터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에 乙이 지급해야 할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. (사기죄)
- ④ 乙은 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하자, 甲의 동의 하에 甲 명의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. 甲은 乙이 보관중인 자기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갔다. (절도죄)

문 20.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ㄱ.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ㄴ.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빗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 경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.
- ㄷ. 유기죄의 행위주체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의 보호의무를 가진 자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.
- ㄹ. 타인의 형사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도 증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